



라 데팡스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향기 '파리의 한국(La Corée à Paris)'

글 김동준 음악평론가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울려 퍼지고, 전통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무용 가운데 하나인 부채춤을 춘다. 한쪽에서는 떡과 김치 등의 전통적이며 대중적인 음식들의 냄새가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서울 혹은 지방 어느 곳에선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장터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파리 서쪽의 신시가지로 잘 알려져 있는 라 데팡스에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을 즈음에 한국이 이탈리아를 2대 1로 적극적으로 이겨서 8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토록 염원하던 16강을 훨씬 넘어선 극적인 기쁨을 한국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파리에 거주하고 있

는 한국인들 역시 맛보고 있다. 그래서 쉽지 않은 파리의 삶에서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얻고 있다. 월드컵의 파장은 비행기로 13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이곳에서도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대단하다.

이탈리아를 이겨 8강에 진출한 날, 나는 메트로에서, 거리에서 프랑스인들의 시선이 나에게 자주 부딪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워낙에 외국인들이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 버스나 메트로 칸에 동양인이 하나만 있다고 해도 특별한 시선을 두지 않는 이들이었다. 그런데 이날 나는 이들이 평소보다 의미 있는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만의 생각 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두 월드컵의 영향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한국인이 아닐까' 하면서 나를

보았으리라 추측해 본다.

월드컵 계기로 한국 문화예술에 관심 높아진 프랑스 국민

예술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나에게 조차 월드컵은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프랑스는 문화예술 대국이다. 그런데 이들이 월드컵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예술 아닌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이전까지는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난 것이다. 파리 주재 한국문화원 직원의 말에 의하면 한국을 소개하는 불어로 된 책자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초등학교 과정에서 글짓기와 발표를 어떤 과목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글짓기 등의 발표 주제를 한국으로 선정하는 일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하려고 하는 소식과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지만, 아직 짧은 파리 체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느끼는 것은 한국의 국운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스포츠나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술,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고 거세질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헛된 욕심은 오히려 삶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헛된 욕심과는 거리가 먼, 아니 그보다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희망, 가져도 좋은 매우 구체적인 희망이라는 생각이다. 한국을 떠나올 때는 타인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대화나 협력보다는 자기만의 안위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는 우리 한국인들의 순수하고 매우 뜨거운 가슴 등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 머리로만 도저히 되지 않는 일들이 뜨거운 가슴과 염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 한국'의 모습 보여줬지만 아쉬움 남아

그래서 이제 전하려는 '파리의 한국(La Corée à Paris)'은 올 한 해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숨가쁘게 소개될 수많은 한국 관련 행사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프랑스에서는 올 한 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파리의 한국' 행사는 KATCI(한국 예술인협회)와 MBC TV에서 조직하여 개최하였다. 라데팡스 앞의 넓은 공간에 공연을 위한 무대와 한국의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식당가, 한국의 전통 도자기와 현대적으로 변용된 각종 공예품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판매장, 한국적인 정취를 맛볼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아담한 정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물놀이와 부채춤 등의 공연이 열릴 때면 프랑스인들은 무대 주변으로 몰려들어 즐거워했고, 아름다운 도자기와 의상 등을 열심히 감상하기도 했다. 전시공간의 한쪽에서는 대금을 판매하며 연주하기도 해서 흥을 돋우었다. 프랑스인을 이성친구로 둔 한국 젊은이들이나 부부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일부 한국인들은 이번 행사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만의 이유는 이번 행사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음식 코너에서 선보인 음식들은 주로 김치, 빈대떡 등을 포함해서 현재의 대중적인 먹거리인 김밥, 호떡 등을 맛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장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좀더 토속적인 한국의 먹거리들을 전문적인 요리사들에 의해 선보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민속의상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에 난데없이 중국과 일본의 의상들이 판매되고 있어서 의아한 생각을 갖게 했다. 한 프랑스인도 중국과 일본의 의상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되었다고 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이번 행사의 초점과 의의를 흐리게 하

는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

행사 조직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행사기간 동안 선보여진 내용으로 보건대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예산만으로 행사를 준비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같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나 주부들이 행사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좀더 규모 있고 완성도가 높은 행사로 마무리되기에는 아쉬움을 남긴 것 같다.

해가 갈수록 기다려지는 행사로 거듭나길...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첫술에 배 부르라는 말이 있듯이 라 데팡스에서 한국을 알리는 '파리의 한국' 행사가 해를 거듭하면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고,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프랑스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손꼽아 기다려지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어쨌든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면 파리 시

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와 전통적인 이미지로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좀더 아로새겼다는 것이다. 행사장 부근에는 프랑스인들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사물놀이나 부채춤 등의 공연에 대단한 흥미와 만족을 표시했다.

'파리의 한국' 행사가 열리는 동안에 파리의 '르 팔레 데 콩그레스'에서는 다양한 한국의 제품들을 전시하는 일종의 무역 관련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파리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나 선호도는 매우 좋은 편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휴대폰이나 컴퓨터용 평면 모니터는 단연 한국의 삼성 제품의 선호도가 높으며, 이미 프랑스 시장의 점유율이나 침투도도 매우 높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의 가전제품 및 산업기계류 등의 프랑스 시장 지배율이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드컵을 주제로 한 종이인형 전시전도 있었는데, 올해 월드컵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예술가들에게는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

